

### 이렇게 들었다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언론대책 문건' 사건은 여러사람의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더한층 미궁에 빠졌다. 이종찬 국회의원의 부총재, 정형근 의원, 문일현 중앙일보기자, 이도준 기자 등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진실을 은폐한 채 이익만을 쫓았다. 가장 정직해야 할 국가의 고위 관리자,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정치인, 그러한 날벌의 사건과 진실을 밝혀야 할 언론인이 파렴치한 행동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특별검사에 의해 재수사가 진행중인 '로보비사건'도 관련된 네 여인들이 정직하지 못해 서로 말이 달랐기 때문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관련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직과 관련한 경전의 가르침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정직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돌려 시끄럽게 물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서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엄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義를 취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차라리 도를 지키다가 빈천속에서 죽을망정, 도에서 벗어난 짓을 하며 부귀를 누리 사는 일이 없거라. (육도집경)  
 ■늘 지성으로 행동하며 꾸밈이 없으면 그 일이 채워져 결여됨이 없을 것이다, 온갖 바른 덕을 늘려 그릇된 행위가 없고 불법을 사랑해 구하는 사람은 빨리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반야삼매경)  
 ■말(과)과 자음로 남을 속인다는가, 마음은 악하면서 말만 착한 체하여 언행이 성실치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 (분별업보경)  
 ■심견(心見, 마음의 작용)을 정직히 하여 속이지 말고 아첨하지 말라. (화엄경)  
 ■아첨하는 마음은 도와 어긋난다. 그러

### "그릇된 사유는 도둑을 만든다"

므로 그 마음을 정직하게 가져야 한다. 마땅히 아침은 자타를 속일뿐이어서 불도에 들어온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음을 알아 할 것이다. (유교경)  
 ■만약 사람의 마음이 곧으면 금과 같이 귀중하다. (제법집요경)  
 ■모름지기 스스로 결단하여 몸을 바르게 지니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며, 여러 품을 더욱 많이 짓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닦고 몸을 깨끗이 하여 마음의 때를 씻어내며, 언행이 진실하여 결과 속이 어울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이디타경)  
 ■몸을 단속하여 진실을 좇으면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법구경)  
 ■속마음이 정직하고 겉모양이 유화(柔和)하며, 모든 사곡(牙曲)을 떠나고 진실한 행위를 지키며, 최고의 진리로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고요하고 견고해서 평등한 경지에 머문다면 이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미중유정법경)  
 ■곧은 마음(直心)은 곧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성불할 때에 아첨하지 않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게 된다. (유미경)

■수행해 먼저 자신을 바로잡은 다음에야 남을 바로잡을 수 있다. (법구경)  
 ■그릇된 생각(邪見)의 죄는 중생으로 하여금 삼악도에 떨어지게 한다. 설사 인간계에 태어난다 해도 두 가지 나쁜 과보를 받게 되는 바, 첫째는 항상 사건을 지닌 집안에 태어남이요, 둘째는 그 마음이 사악함이다. (십주경)  
 ■그릇된 사유는 도둑을 만든다. (천청문경)  
 ■만약 사악하여 청정치 못한 마음을 지녔을 때는 여겁(億劫)을 찾아다니네도 여래를 만나뵙기 어려울 것이다. (화엄경)  
 ■보살의 묘법(妙法)의 나무는 직심(直心, 순수하고 곧은 마음)의 땅에서 난다. 신심의 씨앗과 지비의 뿌리에 지혜가 품이 되며, 방편이 가지와 줄기가 되어 오도(五度,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등 바라마)에 의해 무성해지며, 선정이 잎이 되고 신통이 꽃이 되고 일체지가 과일이 되고 최상력(最上力)이 새가 되어, 그 그들이 삼계를 뒤엎는다. (화엄경)

### 특별기고

### 불교가 해야 할 일



도업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오늘 아침 신문 1면에 나온 한장의 사진은 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500년동안 철천지 원수처럼 적대시하면서 피흘려 싸우던 신·구교의 대표가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서서, 화해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언한 후 478년만에 저들은 지금 가톨릭과 개신교가 손을 잡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땅의 불자들, 특히 우리 스님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니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진지하고 간절하게 우리를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때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을 눈앞에 두고 좌인된 심정으로 우리가 할 일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조건없는 화해를 해야 한다. 화해는 이해에서 시작되고 이해는 양보를 전제로 해야 한다. 한 생각 비우고 보면 총무원을 누가 차지하면 어떻고, 대폭으로 사면복권을 시키면 어떤가. 소위 총무원과 평화회의측은 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무조건 화해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죽어 퍼지기 전에 화살부터 뽑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독화살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화해한 후 한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보자.  
 우리는 모두 한 형제다. 한 때는 강원에서 목청높여 경을 읽던 도반이었고, 한 때는 선방에서 눈푸르게 정진하며 한방에서 한술밥 먹던 식구였다. 그런 인연이 전무한 사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일불(一佛)제자가 아닌가. 지금은 A측, B측 하면서 눈을 부라리지만 후일 나뉘지는 고요한 산사에서 만나면 계면적계라도 웃을 수 밖에 없는 한 식구이다. 자존심이나 체면 이해관계를 떠나서 무조건 화해하고 새 천년을 맞이해야 한다.

### 부끄러운 다름 이젠 그만 끝내고 조건없는 화해를

둘째, 출가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출가할 때 돈벌려고 중이 되었나? 벼슬하려고 스님됐나. 우리 스님들은 지금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반성해야 한다.  
 '재물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요 명에는 풀잎의 이슬과 같은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깨비 같은 것이니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금강경)  
 셋째, 삼기일정으로 대발심하여 넓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 뉴 밀레니엄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지난 천년동안 인간의 지식과 정보·과학은 실로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마침내 현대의학은 복제양까지 만들어 냈고 복제인간이 탄생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한다.  
 물질문명과 문명과학이 크게 발전하고 진보했지만 그에 정비해해서 더 많은 문제를 현대사회는 안고 있다. 인간성 상실, 자연환경 파괴, 개인이기주의 등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종교나 철학은 없는가. 있다. 분명히 있다. 어떤 가르침일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연기법은 독선적이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으며 지배적이지 않고 공존적인 사상이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반야지혜의 증득법이 있고, 동체대비의 사랑법이 있으며 중생구제의 보살행이 있다.  
 이들 사상을 분석하고 정리해서 못 중생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존의 사상을 우리 스님들이 사회화시키고 행동화시켜야 한다. 절집안의 재정이나 행정은 재가신도들에게 맡기고 우리 스님들은 인간과 환경, 못 중생이 공존할 수 있는 이론과 실천을 위해서 정진해야 한다. 이같은 법이 살고 못 중생들이 모두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 열린 마당

### 복지관 관장 자격요건 강화

보건복지부가 10월8일 입법예고한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칙'이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데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이 적용될 운영규칙에는 현재까지 적용돼 온 '법인'이 인정된 자격이 있는 자의 관장자격기준이 삭제되어 있어 지금까지 이 조항에 의해 관장을 임명해 온 불교계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스님이 관장이 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불교계에서는 '항상 뿔어나가던 불교 복지'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의 시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잘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본다.

### "교계 사회복지 참여 위축 가능성"

**혜충(용호중합사회복지관장)**  
 개정안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삭제된 '법인'이 인정된 자격이 있는 자의 관장 자격기준은 종교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없애서는 안될 항목이다. 현재 30여개의 교계 복지관 관장은 거의 대부분이 스님이고, 이중 60%정도가 '법인'이 인정된 자격이 있는 자' 항목에 따라 임명됐기 때문에 이 규칙이 시행될 경우 교계 복지계로서는 충격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법인에서 복지관 운영비의 20%를 재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장자격요건문제로 복지사업이 스님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경우 불교계로서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과연 어느 누가 사재를 출연해 복지관을 짓고 운영하겠는가. 이는 결국 재 채도에 오르고 있는 불교복지

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복지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각종 후원 등도 스님들의 지역사회 활동과 연결돼 있는데 스님이 아닌 일반인이 관장을 맡으면 불자들의 복지사업에 대한 동참률도 떨어질 것이고, 불교인력의 고용창출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새로운 규칙적용은 복지관 인건비 100% 전부가 국고로 지원되기전까지는 보류돼야 한다. 앞으로 5년이면 이것은 실현될 수 있다. 그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 "운영위 구성등 전문성 확보기회"

**이호걸(조계종 복지재단 총무과장)**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소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있으나 우려하는만큼 불교 복지계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요소들도 많다고 생각한다.  
 신규 복지관의 경우는 자격요건을 갖춘 스님이 별로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스님이 관장을 맡지 않더라도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위원장을

주지스님이 맡고 관장을 전문인력으로 포진시킨다면 오히려 불교복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주지스님이 직접 관장을 맡지 못한다해서 수탁운영이나 복지시설 건립을 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복지사업에 뜻있는 스님들이 이를 이유로 활동을 그만두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 목탁소리

위영란 <취재부장>  
 한국불교계는 우물안에서 사는가. 아니면 문명과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사는가.  
 최근 일본 불교계와 불교학계 두 거장의 타계를 두고 보면 반응과 관련 지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10일 세계적인 불교학자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박사가 86세로 별세했다. 비교사상에 권위자였고, 일본에서 한국관계학을 처음으로 개강한 학자로 국내 번역서도 최다수를 집할 정도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일본에서는 아사히 등 5대 신문과 방송사에서 대서특필로 다루어졌고, 중국 티벳 등 세계 불교국가들의 조전과 조화가 앞다투어 보내졌다고 한다. 화장후 3일장으로 치러진 그의 밑장에는 40여 조문 사절단이 자리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체 알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에 앞서 10월4일 일본 입성교성회 나와노닛코

### 우물밖 소식에 관심이

(庭野日敏) 前회장이 92세로 타계했다.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단체인 입성교성회의 개산조인 그는 세계종교평화회의 창립멤버로 지부적인 한국종교평화회의(KCRP)의 결성에도 역할을 토했다. 일본 불교계와 언론이 떠들썩하게 그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막상 한국불교계는 소식을 접하지도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마미침 한중일 불교 교류차 방일중이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스님이 영결식에 참석하고 조의를 표했다. 한편 나카무라 하지메박사의 화장후 25일만에 동방 환인장으로 치러진 본지에 동국대학교 송석구총장과 한일불교문화교류회 이사장이 조화와 조전을 보내 조의를 표해 체면치레는 된 셈이다.  
 불교정신이 국경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한국불교가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세계적 불교화 추세를 고려해도 이번 두 거장의 죽음에 대한 한국불교의 대처는 아쉬움이 많다. 국단적으로 표현하면 세계속의 한국불교의 현주소를 보는 듯 하다.

## 奉行

# 青潭大宗師 28週忌 追慕大法會 案内

청담 대종사 28주기 추모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함을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에게 알려 드리오니 무루 참석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일 시: 불기 2543년 11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대강당
- 문의처: 도선사 총무소 (02)993-3161~3

불기 2543년 11월 1일

大韓佛敎曹溪宗 護國懺悔祈禱道場 **三角山 道誥寺**

회주 이혜성  
주지 김광복 합장  
청담 문도회일동

## 공고

### - 제 30대 총무원장 선거인단 소집 -

대한불교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다음과 같이 소집코자 공고하오니, 선거인단 스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대 상: 중앙총회의원 78명 및 각 교구총회에서 선출한 교구별 10인의 선거인단
- 일 시: 불기 2543(99)년 11월 15일(월) 오후 1시 - 4시
- 장 소: 조계사 대웅전
- 지침: 신분증 및 도장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장소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통지 및 신문공고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1차 투표시 선거인단 재적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오후 4시 이후에 재투표 및 결선투표가 실시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승려증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어야 합니다.

불기 2543(99)년 11월 8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덕운